# 살아 있는 시대의 지성, 리영희

● **때** _ 2002년 9월10일

● **곳** _ 수리산 자락 리영희 선생님 자택

● **대담** _ 박호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본지 편집위원장)

_ 이광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위원)

**리영희** | 1929년 평북 삭주 출생 ● 1959년 국립해양대학 졸업. 한국전쟁 전까지 경북 안동공업(중)고등학교 영어교사 근무 ● 1957~64년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 ● 1960년 미국 노스트웨스턴대학 신문대학원 연수 ● 1964~71년 조선일보, 합동통신 외신부장 역임 ● 1972~1976년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겸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1976년 해직 ● 1980년 복직 ● 1987년 미국 버틀러대학 부교수 'Peace and Conflict' 특별강좌 강의 ● 1995년 한양대학교 교수 정년퇴임 ● 현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 저서 :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베트남전쟁』,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외 다수

수리산 자락의 거처를 찾은 일행을 선생님은 미리 문을 열어 놓으신 채 맞아주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의 양심' 이 가장 문제시하는 미군의 방공망이 선생님의 거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국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의 정상에는 미국의 방공망이 자리 잡고 있지.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운을 띄운 선생님은 일행을 서재로 안내하셨고 이어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다. 선생님은 최근 건강이 안 좋으신 가운데에도 두 시간 가까이 자신의 생각을 흐트러짐 없이 펼쳐 보이셨다. 최근 도올 김용옥이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을 엮은 책을 보내 왔다는 것을 화두 로 해 이야기가 시작됐다.

● 선생님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종교는 무슨 종교……. 불교, 기독교, 유교 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도화된 종교라면 나에게는 종교가 없다. 물론 예수나 부처, 마호메트 등의 가르침과 행적은 하나의 가르침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독단적인 의미에서의 종교는 나에게 없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신상기록과 관련해 종교를 쓰는 난이 있었는데 불교, 기독교 등등의 많은 종교를 썼던 기억이 난다.

● 스핑크스에 코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프랑스 병사들이 그 코를 사격연습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아 왔다. 그런데 선생님은 『스핑크스의 코』라는 저서에서 그것을 독단론의 산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곳 대부분의 조각상에는 코가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하는 서구인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미물을 포함해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범신론적인 발상이 유일 종교에서는 수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총으로 제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모든 코가 없어진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독단론의 결과이다.

● 흔히 사람들은 선생님을 '시대의 양심'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쎄, 양심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것인데, 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과연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후자에 의한다면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 1950년대부터 비판적인 입장에서 발언을 해오셨고 따라서 일화도 많았지만, 64년 비동맹회의 관련 필화사건은 유명한데, 당시 정황은 어떠했는가?

물론 그 이전에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당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는, 특히 국제연합에는 이른바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이유로 남한만이 초대됐는데, 공교롭게도 비동맹 외교회의에 남북한 모두의 대표들이 참여해 한반도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그래서 그 기사를 썼는데, 그것이 필화사건으로 전화됐다.

● 당시 선생님이 주요 화두로 삼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

미국의 패권 문제, 사회주의 문제, 베트남 전쟁, 중국 문제 등이었다. 나는 합동통신 국제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계속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사실보도를 하고자 노력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소설가이자 『국제신보』 주필이었던 이병주 씨가 세계 정세의 흐름을 가장 날카롭고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이후 그와 알고 지내게 됐다. 하지만 결국 언론에 대한 권력의 압력과 이에 언론이 굴복하면서 나도 68년 회사를 떠나게 됐다.

● 합동통신을 그만 둔 뒤에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

직장을 그만 둔 뒤에는 언론인 같은 지식인으로 생활하지 않으려고 했다. 언론인이건 대학교수건 모두가 권력에 굴복해 민중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권력에 붙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며, 차라리 그러기보다는 거기에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는 노동자로 살고자 했다. 사상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혁명적이지도 못했고, 어찌 보면 자유주의적 지식인에 불과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 시발택시 기사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어머님이 당신이 죽기 전에는 안 된다고 반대해 포기했다. 결국 이병주가 만든 '아폴로' 라는 출판사에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중 · 고등학교에 책을 팔러 다니게 됐다. 겨울 양손에 책 다발을 들고 한성고등학교의 눈 쌓인 언덕을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 번 미끄러지곤 했던 기억이 난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라는 레닌의 이야기도 아마 이와 같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모두 웃음).

● 그러면 다시 기자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출판사 일을 하고 있을 때, 합동통신 후배를 우연히 길에서 보게 됐는데, 내 사정을 회사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 같다. 마침 조직개편 과정에서 외신부장이 비어 있으므로 와 달라고 했다. 이 때는 나 또한 지식인이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지식인으로서 정면으로 그것과 부딪쳐 나아가자는 생각을 했고, 다시 언론사로

돌아가게 됐다. 그렇지만 그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1년 후에 다시 그만두게 됐다.

● 선생님은 시대적 징표를 담은 많은 저작들을 내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전환시대의 논리』는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가?
통신사를 다시 그만 두게 된 후, 친구가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한양대로 오라고 했다. 당시에는 교수임용제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뒤처럼 교수 되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 교수라는 직이 다소 세상과는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기존에 쓴 글과 새로이 쓴 글을 묶어 그 책을 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전환시대의 논리』이다.

● 그렇다면 당시 『전환시대의 논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자발성이 보장되고 억압과 불평등이 최소화되는 인간다운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 그와 연관시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과거부터 '인간다운 사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과연 자본의 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물론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 의미에서이다.

이윤과 착취를 골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그 자체는 그냥 놔두면 극단적으로 부패해 존속할 수가 없다. 독일의 비스마르크조차도 사회주의 진압법으로 사회주의세력, 진보세력을 탄압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볼 수 있다. 이윤과 착취를 골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그 자체는 그냥 놔두면 극단적으로 부패해 존속할 수가 없다. 독일의 비스마르크조차도 사회주의 진압법으로 사회주의세력과 진보세력을 탄압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와 같은 조치는 부수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비스마르크조차도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인 사상, 정책, 정당 등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서유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과정을 경과하며 '인간다운 사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가 가능해질 수 있다.

● 그렇다면 '인간적인 얼굴' 에 비해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물론 한국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베트남전쟁은 완고한 냉전분단 반공체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본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것은 분명히 자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됐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그에 침묵하거나 더 나아가 동조했다.

있다. 반공주의, 국가보안법 등이 존재하고,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냉전적인 발상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직 멀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과거에 비해 진전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불충분하다.

● 선생님의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사와 관련, 선생님이 쓰신 『베트남전쟁』이나 『8억인과의 대화』에서 보이듯 베트남, 중국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나?

이미 언급했듯이 당시 제3세계 문제는 내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는데, 베트남전쟁은 완고한 냉전분단 반공체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본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것은 분명히 자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됐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그에 침묵하거나 더 나아가 동조했다. 따라서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이 베트남전쟁에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 자본주의는 이윤과 생산성을 기본 원리로 했으므로 스스로 많은 폐악을 드러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또한 맑스 이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독재' 도 적지 않은 폐해를 노출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당시 중국은 이런 극단의 형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중의 자발성도 그렇고, 동양적 중용이랄까, 그런 모습들은 '새로운 대안의 실험' 으로서 나의 관심을 끌었고 내게 영향을 주었다.

● 이제 남북한 문제로 화제를 넘겨보겠다. 얼마 전 또 다시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미 선생님은 『통일시론』이라는 잡지에 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 주신 바 있다.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 남북관계를 보는 극우 ·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은 과거 한국전쟁기의 시각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북한은 국제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 적화하고자 한다는 등의 반이성적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남북한 관계의 발전은 요원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

면, 이른바 한국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이제 역사의 주무대에서 사라질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 내에서의 이들의 역할은 주변화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향수, 특히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몸으로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는 등의 논조를 되풀이해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발상과 행태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하신 말씀과 관련, 이 사회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 대화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만을 이야기할 뿐 남한을 대화의 상대에서 소외시킨다는 말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사실 한반도 문제, 남북한의 문제를 정확히 보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가 지금까지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한반도 문제의 열쇠를 미국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햇볕정책' 이니 뭐니 해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그와 같은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인 행위 주체는 미국이고, 약 70% 정도는 여전히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남한을 소외시킨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관련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정치 · 군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경제협력, 남북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은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 물러가라' 고 외친다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좀더 현실적이어야 한다. 언젠가 청와대가 전문가들에게 남북한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듣겠다고 해 들어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내 기본적인 생각은 남북한 문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 ·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남과 북이 다양한 채널의 교류를 통해 좀더 안정적인 관계와 신뢰를 조성한다면, 결국 이것은 한반도의 정치 · 군사적인 대결 상황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조성은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얻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구호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것으로 제기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 미래의 일이겠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가?

남북관계가 신뢰 단계로 접어들고 그것이 안정화되어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능하게 되면, 그 공백은 유엔의 다국적 평화유지군과 같은 형태로 점차 대체하면 된다. 주한미군 1천 명의 철수에 대한 다국적 평화유지군 1천 명 대체 등과 같은 방법이 그것이다. 사이프로스 문제 등도 이런 과정을 밟아 해소되는 중이고, 지금 한국도 그 일원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 주한미군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최근 여중생 두 명이 미군의 장갑차량에 압사된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더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 동안 평택이나, 의정부에서 반복되어 왔던 것이 되풀이된 것에 불과하다. 지금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 행정협정의 개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며, 그 개정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효력의 기간, 범위 등의 문제에서 어떠한 제한 규정도 없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어떤 지역도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요구할 수 있고 남한은 그에 따라야만 한다. 바로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중생 압사와 같은 사건은 의정부에서, 동두천에서, 또 그 어디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다.

(선생님은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첨단무기 구입과 관련, 그 절차의 투명성 확보 문제를 넘어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보통 첨단무기를 구입하면, 국방전력이 강화된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댄다. 물론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미국의 압도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것이 미국의 하위전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두 개의 중국' 정책을 부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만의 분리·독립을 자극하고 있다. 향후 이 문제가 불거지고 긴장과 위기가 조성되면 지금의 한미관계에서 볼 때, 한국의 국방전력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저지력으로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첨단무기 구입을 찬양해서는 안 되며 여러 조건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는 현실을, 특히 우상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상은 프랑스 혁명 이래 화두가 되어온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다.

● 좀더 시야를 넓혀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등이 다시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작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테러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9·11테러 핵심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동안 이스라엘은 국제연합 산하에 있는 대부분의 기구에서 철저히 배척되어 왔고 올림픽도 나가지 못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이스라엘을 지원해 왔다. 원유, 정치·군사적 교두보 확보라는 정책목표가 있지만, 이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중동 인민들이 희생됐는가? 9·11테러는 그로 인해 희생을 당한 개인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이 팔레스타인이나 그밖의 아랍 인민들에게 한 짓을 감안하면, 어찌 보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반성을 하기보다는 더욱 호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문제는 건설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지구화가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성격과 위상 변화를 둘러싼 논의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조금은 다른 맥락이지만 선생님은 그 동안 국가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유신독재를 겪고 감옥생활을 하면서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됐다. 이런 경험은 과거 식민지 시기 일본 천황의 지배에 대한 기억과 맞물려 나의 머리에 강하게 남게 됐다. 그것은 한마디로 획일주의인데, 이런 측면에서 나는 북한에서 하는 최근의 아리랑축전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국가주의, 대중의 자발성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우리 사회를 압도했던 2002 월드컵 응원 열기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었다. 특히 자발적 응원은 놀라웠지만, 그 많은 인파들이 폴리스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의 기저에는 국가주의가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는 주목할 만한데…….

사실 나는 월드컵 응원 열기를 보면서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다. 한

국을 외치는 것과 대한민국을 외치는 것은 다르다. 공식적으로 그 많은 인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일사불란하게 응원한다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 성격의 공식적인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매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것일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그것이 마치 자발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이미 본 것처럼 거기에는 자본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큰 차원에서 보면, 결코 그것은 개인의 자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선생님 개인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이 정력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국내 상황과 관련해 볼 때, 선생님과 같은 비판적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선생님은 루쉰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루쉰(魯迅) 이외에 마오(毛澤東)한테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정치학자들은 잘 모르는데, 영국의 라스키(H. J. Laski)한테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후에는 사르트르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미국에서 수학하기도 했지만, 미국 학자들한테서 어떤 영향을 받은 바는 없다. 보통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 사람들이 미국의 압도적인 물질적 힘에 주눅이 들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처음엔 그 문화적 충격이 컸지만, 그것이 나의 비판적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 마지막 질문으로, 선생님은 이념적으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아니면 민주주의의 상은 무엇인가?

글쎄, 뭐라 할까……. 자유주의가 현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간다는 면에서 보면 자유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태도는 자유주의자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휴머니스트라고 하기도, 사회주의적 휴머니스트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모든 것은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나는 현실을, 특히 우상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상은 프랑스 혁명 이래 화두가 되어온 자유와 평등의 보장이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억압받지 않은, 또한 불평등이 최소화된 그런 사회이며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애초 리영희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선생님의 건강 때문에 다소 우려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저녁 TV종합뉴스 정도만을 볼 뿐, 건강을 위해서 여타 세상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려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이런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그렇지만 정작 대담이 진행되자 선생님께서는 수 시간 동안 당신의 생각을 피력해 나아가셨다. 그리고 대담 과정에서 애초의 말씀과는 달리, 선생님이 최근 남북한 정세와 국제정세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종종 피곤한 기색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스스로 몸을 푸시며 수 시간 동안 꼿꼿이 앉아 흐트러짐 없이 대담에 임하시는 모습에서 참지식인으로서의 그의 무게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